

“사수” vs “칼질”... 예산전쟁 시작됐다

與 “소득주도 성장의 첫발...원안 통과에 최선

3野 “인기 편승해 복지 증액...재원 송곳 검증”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에 대해 여야가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람 중심 재정안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이라며 원안 통과를 주장했지만 야당은 문재인 정부가 인기편승적인 복지예산을 무분별하게 늘렸다는 지적을 내며 “칼질”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대년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람 중심의 재정안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예산안이다”며 “민주당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2018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SOC 등 물적 투자는 축소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 복지와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소요 재원을 조달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은 한국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소득주도 성장’의 첫 발을 내딛는 예산안”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12월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의 평가는 상반됐다. 국민의당은 “정부가 429조 규모의 사상

최대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확대로 인한 국민 부담이 본격화할 것이라 걱정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명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같이 주장한 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20% 대폭 감축한 것은 손쉬운 재원 마련 방안처럼 보이지만, 이는 국가의 장기 성장잠재력을 훼손하고 지방의 일자리 감축과 중소기업 일감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SOC 감축은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지킬 중요한 수단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은 현금살포형 분배예산, 성장 무시 예산, 인기관려용 포퓰리즘 예산으로 미래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하는 예산”이라며 “간신히 전 정부가 맞춰 놓은 균형재정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예산이다”고 혹평했

다. 예산 규모가 7.1% 증가한 것에 대해 “2009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 10.6% 이후 최대 크기다”며 “2016년에 2.9%, 선거가 있는 2017년 예산도 3.7%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두 배 이상 국민 부담을 늘리는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SOC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작년 경제성장 2.8%의 60%, 올해 상반기 1.7%의 55%는 건설부문에서 이뤄졌고, 일자리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건설예산에서 이뤄졌다”며 “건설 예산을 깎아서 소득 주도로 뿌려주면 그것이 성장으로 갈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YTN 인터뷰에서 “복지예산을 너무 많이 늘리고 SOC 예산을 대폭 줄인 점, 이런 예산 편성이 향후 지속적으로 가능하느냐, 재원대책이 뭐냐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질 작정”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인터넷서 중복좌파세력 청소해야”

與 적폐청산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녹취록 공개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를 하루 앞둔 29일 원 국정원장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 등을 공개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그동안 별도 입수한 문건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녹취록을 바탕으로 2009년 5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원 전 원장의 발언을 자료 형태로 정리해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보 집김이”라고 해서 국가정책에 협조하는 세력을 키워나가자. (직접) 지원해주면 문제가 생기니 간접적

으로 지역단체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며 “각 대학에 우리 조직도 만들고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라”고 지시했다.

원 전 원장은 또 “인터넷 자체가 중복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다.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는 자세로 중복좌파 세력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원 전 원장은 2009년에는 “지방선거가 11개월 남았는데, 어떤 사람이 도움이 될지 판단해야 한다”며 “1995년 선거 때에도 본인들이 민주당 후보로 원해서 나온 사람 별로 없다. 국정원에서 나가라고 해서 나간 것”이라고 말하는 등 국내 정치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정 찾는 국민의당...내부서도 협력모드

박지원 “선명 야당 당연한 판단”
황주홍 “갈등 해소 잘 할 것”
정대철 “안대표 성공 도와야”

국민의당 안철수 신임 대표의 출마에 반대했던 인사들이 전당대회 이후 당을 안정시키기 위해 일단 안 대표에게 협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내 갈등이 빠르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 새지도부가 꾸려진 상황에서 위기에 처한 당 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당 내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인 호남 민심과 호남 의원 상당수가 여전히 안 대표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기류가 엿보이면서 언제라도 내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 또한 당 대표에 오른 안 대표의 향후 행보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안 대표가 과반을 겨우 넘긴 것은 예전보다 위상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질문에 “대선 패배가 있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라며 “과반 득표를 한 것은 굉장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안 대표가 ‘선명한 야당’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판단”이라며 힘을 실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인사 편향성을 보면 갈수록 인사가 망사가 돼 가고 있다”며 “안 대표가 무조건 박수만 칠 것이 아니다”고도 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안 대표는 ‘강철수’라는 말을 스스로 들고나온 적이 있는데, 이제는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지금까지 보



안-홍 대선후보서 당 대표로 해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예방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왼쪽)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운 정치에서 새롭게 변해 ‘변철수’가 돼야 한다”며 “완전히 환골탈태 당원들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대표 출마선언 이후 강하게 출마 반대 의사를 밝혔던 황주홍 의원 역시 지난 28일 국회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당내 갈등을 잘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안 대표를 향해 “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한다”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가 아닌, ‘충성스러운 반대’의 길을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동교동계 좌장인 정대철 상임고문 역시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분열을 멈추고 지도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는 처음에는 안 대표의 출마를 반대했다”며 “하지만 당과 당원이 안 대표를 불러냈으니, 이제 존중하고 성공하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일부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지 않는다”며 “처음에 그런 얘기를 한 사람도 염포용이 아니겠냐”라고도 했다.

다만 여전히 일부에서는 의원들이 반발하며 당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호남 민심이 안 대표를 쉽사리 받아들이지는 못할 것”이라며 “지역 여론에 민감한 호남의원들을 중심으로 저항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 안팎에서는 안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이나 주요 당직에 호남을 배려하는 한편 당권도전에 나섰던 정동영·전정배 의원을 끌어안을 수 있는 ‘퐁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김형호기자 khk@kwangju.co.kr

민주 전남도당 사무처장 박영중씨 선임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9일 “신임 도당 사무처장에 박영중(46) 중앙당 노동국장을 거쳐 노동국과 대외협력국을 통괄한 노동대외협력국장을 역임했다. 박 신임 처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정기라운지

“대기업 공공기관 구내 식당 입찰 불허해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28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 식당의 입찰 참여를 불허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공공기관 구내식당의 급식 시장 80%를 삼성과 신세계, CJ, 현대, 엘지, 한화, 동원 등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12년 대기업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입

찰 참여를 금지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2016년 9월 재발 참여를 허용한 뒤 공공기관 구내식당 대기업 점유율 확대가 더욱 심해졌다”면서 “약 5조 원으로 추정되는 국내 단체급식 시장에서 80%에 해당되는 약 4조 원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차지하고 나머지 1조 원 시장을 놓고 4,500개 중소기업이 경쟁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의 위협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기석, 대한변협 선정 ‘우수 국회의원상’

국민의당 송기석(광주 서구갑)의원이 28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2017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송기석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의원, 자유한국당 나경원의원 등 우수 국회의원 10명을 대상으로 ‘2017 우수 국회의원상’ 시상식을 열었다.

대한변협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헌신하는 정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을

분석해 지난해부터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10인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송기석 의원은 “앞으로도 정책 현안과 제도 개선 사항들이 바로 잡히는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실현되는지 점검하는 것은 물론 민생 정책을 발굴하는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쌍촌동 메인상권 지하2층 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0㎡ 매매 55억 (보17억1천 월1천1백 5십만)
- ★ [건물] 동구 동명동 대로변접 상가주택건물 5층 대지 452㎡ 건물 1,464㎡ 매매 17억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중심상권 일반상업지역 위치좋은 상무대로변 지상1층건물 대지 1342㎡ 건물 413,49㎡ 매매 49억
- ★ [건물] 광주 서구 동천동 동림2지구내 중심상권 아파트 상가 밀집지역 하남대로변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7층 대지 867,90㎡ 건물 4124,36㎡ 매매 65억 (보5억 월수익 3천9백)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중심상권 상가 밀집지역 위치좋은 지하1층~지상5층 대지 198㎡ 건물 729㎡ 매매 25억 (보5억6천500만)
- ★ [고시원] 광주 동구 서석동 객실 36개 5층건물 1층커피 토지 423㎡ 건물 845,23㎡ 매매 18억 (대출7억 월수익1천3백)

병원

- ★ [의료시설] 전남 곡성군 오산면 요양병원 (2천평 신축부지 허가완료 포함) 지하층 지상5층 토지 19,860㎡ 건물 2,545㎡ 매매 5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남구 주월동 의료시설가능함 (현 상가건물임) 지하층 지상7층 토지 995㎡ 건물 2,030㎡ 매매 47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동구 산수동 지하층 지상4층 토지 597㎡ 건물 948㎡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북구 양산동 지상5층 토지 475㎡ 건물 1,044㎡ 매매 20억
- ★ [의료시설]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지하층 지상7층 토지 1,350㎡ 건물 3,943㎡ 매매 53억
- ★ [의료시설] 전남 화순읍 신기리 지하층 지상4층 토지 8,630㎡ 건물 6,300㎡ 매매 100억

토지 추천 물건

- ★ [토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추암리 생산관리지역 대지 2,720㎡ 매매7억 펜션부지, 전원주택 적합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우수 매매가 상당후결정 인근 27홀 골프장 시설 부지 확정
- ★ [토지] 전남 곡성군 오산면 봉동리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임야 52,504㎡ 매매 평당5만
- ★ [토지] 서구 치평동 대로변접 대지 3470㎡ 매매 73억4천8백만
- ★ [토지] 광산구 송정동 대로변접 대지 1342㎡ 매매 45억
- ★ [토지] 동구 지산동 대로변접 자연녹지지역 대지 1,948㎡ 매매 27억 7천만
- ★ [토지] 전남 창평면 삼천리 계획관리구역 대지 3,041㎡ 매매 평당70만 전원주택 (단지조성가능) 적합
- ★ [토지] 북구 삼각동 1층주거지역 대지 1,326㎡ 매매 평당2백7십만

공인중개사 김은희 010-6243-3704